

국민은행 '고객경험 혁신' 온오프 안 가린다

20년 노하우 집약 'KB모바일인증서' 편성성 높아 발급자 1100만명 돌파
이동점포 'KB 시니어 라운지' 오픈
디지털 시대 고령층 금융소의 해소

KB국민은행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KB모바일인증서 발급자 1100만명 돌파

먼저 온라인에서는 간편인증 서비스인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공인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이어,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며 3가지 정부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정부24, 홈택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경찰청 교통민원24 등 7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자 수도 6월 16일 기준 1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KB금융 계열사의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KB국민은행의 20년 인증업무 운영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편리한 인증서



비스 제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실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편리성을 강화해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저족을 사로잡은 게 인기 요인이다. KB국민은행 첫 거대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 지문, 얼굴인식 중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도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KB스타뱅킹에서 자동갱신되므로 만기 때마다 번거롭게 갱신할 필요가 없다.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과 안전성도 확보했다. 3가지 방식의 본인인증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킹 및 탈취로부터 더욱 안전한 인증서 하드웨어 저장방식을 지원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두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3년간의 운영 경험, 1100만 명을 넘는 고객 수, 70여 개 공공기관 사용처를 확보한 점은 은행권 인증서로서 독보적이며 후발 사업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향후 사용 기관을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찾아가는 은행 'KB 시니어 라운지'

오프라인에서는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해결하고자 18일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대형 뱅을 통해 순환 운영하는 이동점포로, 서울시 5개 자치구(중랑구, 은평구, 노원구, 강동구, 강서구)의 어르신 복지센터를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방문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전담직원을 배치해 현금 및 수표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수령 등 고령층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어르신 복지센터와 협업체고 고령층 고객 대상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회사 측은 "KB 시니어 라운지 운영은 고령층 고객의 금융 소외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년 5개 복지센터에서 시작으로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나 웨이브스' 2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참여주머니금융 회장(가운데). 사진제공 | 하나금융

하나금융 "여성 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2기 출범식

하나금융이 최근 서울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하나 웨이브스'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들의 미래를 이끌 여성 리더를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웨이브스(Waves)'는 Women's Actions, Voices, Emotions의 약자로 여성의 행동, 목소리, 감성으로 혁신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룹 내 여성 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각 관계사 CEO의 추천을 받아 36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말까지 그룹 멘토링, 온라인 MBA, 전문 직무과정, 전략과제 발표 등을 통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세를 배우고 전문화된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강하지만 부드러운 감성과 섬세하고 사려 깊은 여성의 강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의 변곡점에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여성으로서의 강점과 진정성으로 앞서가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뮤직박스'를 선보였다. 하나원큐 앱 내 생활 제휴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무료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매월 200곡의 음악을 5개의 카테고리 나뉘어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손태승 회장, 경영 키워드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조

(우리금융)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 참석
"복합경제위기 속 취약층 보호해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하반기 주요 경영 키워드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15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그룹 임원진과 MZ세대 대표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열었다. 그룹의 대도약과 대약진을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뤄가자는 의미에서 '더 그레이트 무브(The Great Move)'를 행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우리금융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 사진제공 | 우리금융

손 회장은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여러

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자회사들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혁신과 ESG 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황령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사내 분위기를 다잡았다. 손 회장은 "상반기에 양호한 재무실적 등 좋은 성과도 많았지만, 고객 신뢰에 상처를 입은 아쉬움도 컸다"며 "물이 바다라는 목표를 향해 가다 용머리를 만나면 반드시 그 용머리를 채우고 다시 흐른다는 맹자의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부족했던 점들을 확실하게 재정비하고, 하반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일일 쿠킹클래스' 행사에 참여해 직접 만든 요리로 함께 식사하는 등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손 회장은 "직원들과 요리를 함께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리버스 멘토링은 상하관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방법으로, 향후 임직원 간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 해외여행 특화 '트래블엔로카' 출시



롯데카드가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해외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엔로카' (사진)를 내놓았다. 이용금액의 최대 3%를 트래블월렛 앱에서 15개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트래블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트래블포인트 1%를 기본 적립해주며, 해외·항공사·여행사 가맹점에서는 3%를 매달 5만 포인트까지 특별 적립해준다. 또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 시 해외여행자 보험 혜택을 준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9일 (화) 음력: 6월 2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게끔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참고 견디면 의외로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난에 해결 방안으로서 중도에서 무를 타협이나 고지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 정면 돌파 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 속임수가 있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동을 삼가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우물쭈물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 시킨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동을 삼가하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책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협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동이 따른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중도에서 무를 타협이나 고지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 정면 돌파 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 속임수가 있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일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균세면서도 위협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지는 날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사람과 대화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오늘은 내가 당하기도 한다.

오늘의 날씨			19일(화)
서울 10/20	인천 0/10	춘천 30/30	
24 30	24 28	23 32	
강릉 30/20	대전 60/20	전주 60/20	
24 30	23 31	24 31	
광주 30/0	대구 60/0	부산 80/10	
24 31	25 34	25 30	
창원 80/10	제주 6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5 32	26 31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재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